

濟州島 長壽者의 勞動經驗과 勞動倫理*

전 경 수**

1. 서 론

오래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현상이다. 유전적인 절대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방식이 개입된 상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삶의 결과로서 우리는 장수자들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의 장수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의 當地研究와 보고에서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이용철 2002 & 전경수 2001). 본고는 생물학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문화적 현상으로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장수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섭생이 장수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개연성에 대해서 귀납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설명해보려고 한다.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섭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도 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평생을 살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수명에 물리적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이 가정을 증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즉 장수자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일별해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과 일에 대한 장수자들의 인식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 연구를 지원해 준 제주도와 자료 수집에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 준 안미정 석사(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인터뷰에 응해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본 보고서는 장수노인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생애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일과 일에 대한 윤리(work and work ethics)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때 일에 대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즉 시간당 임금의 형태로 일을 생각하는가 또는 일이 곧 생활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등의 구분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구분을 근거로 하여 일이 장수라는 현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섭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일과 일에 대한 윤리가 섭생의 다른 부분들을 구성하는, 즉 예를 들면, 음식이나 가족관계 등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삶을 보여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인구학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8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장수마을'로 선정하였다. 모두 제주도의 서부지역에 해당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2002년 2월 한 달간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선정된 장수마을들은 애월읍 고성1리와 유수암리, 한경면 금동리와 산양리, 그리고 안덕면 감산리의 노인들을 주 면접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의 의도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전수를 면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5개 마을에서 만났던 26명의 장수노인들 중 한 마을 안에 가족이 있으면서도 따로 거주하는 노인은 19명이었으며, 마을에서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부부 혹은 독거노인이 4명, 미확인이 3명이었다.

2. 생애사로 본 제주 장수노인들

1) 日帝時代의 경험: “나 경허명 살아난 사람”

현재 80대 이상의 노인은 1910년대 또는 1920년대에 출생하여 일제시대의 생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십대 후반부터 이십대와 삼십대를 사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은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빚어진 가림주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출과 부역, 징용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익히 들어 왔다. 빈약

한 생산력에 전쟁 물자의 조달을 위한 공출은 늘 배고픔을 가중시키는 것이었고, 부역과 징용은 과중한 노동에 의한 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일찍이 없었던 식민지의 경험은 이들의 삶에 어떤 굴곡을 만들었을까? 그런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장수자'라는 어찌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까닭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일제시대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농사와 연관된다. 당시 제주도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통적 방식의 영농법이 지배하는 경제생활이 중심을 이루었다.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구도가 이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떼어내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생활, 즉 생활이 농사일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70년 내지 80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간 속의 기억을 농사와 관련지어서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할머니들은 "흙에 방동애"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을 늘 밭에서 김을 매면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살았다는 얘기다.

김매기뿐만 아니라 "출비고 여름엔 조 같고, 콩 갈아 검질 매고, 공출하고, (미녕이라는 옷감을 만들어) 옷 해입고", 이 과정이 하루와 일년의 과정이었다. 소나 말을 키웠던 집에서는 (마을)목장에 소와 말을 보냈다가 겨울에는 다시 집으로 데려와 여물도 주고 "출"(소먹이 풀)도 줘야 했다. 마른풀을 먹이로 주기 위해선 추석이 지나 풀을 베기 시작하여 말려서 묶고(출 몇가닥을 엮어서 새끼처럼 끈을 만들고, 한 손으로 운반이 가능할 정도의 양인 출을 한 단으로 묶음) 쌓았다가 집으로 운반하여 다시 '눌'(단으로 묶은 출을 쌓아 둔 것을 말함)을 만들어 쌓아두면서 매일 소의 먹이로 주는 것이다.

당시 가장 많이 했던 농사는 보리가 으뜸이다. 어떤 농사이든 연구자가 방문한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이 출발하는 농사 이야기 시작은 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콩, 조, 메밀이 그 뒤를 잇는 농사들이다. 더러는 "나룩"(논벼)과 "산디"(밭벼)가 주체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음에도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것은 재래식 농법이 갖는 생산량의 한계와 설상가상으로 일제의 강요에 의한 공출에서 비롯된 수탈의 과정이 겹친 때문이었다.

제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강한 바람과 척박한 토양과의 싸움이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된 농법으로는 糞種法이 있다(전경수 1997:

147-148). 농사에 관련된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는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분이나 축분을 잡초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呂氏春秋〉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糞田이라고 하며, 〈齊民要術〉에서는 踏糞法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씨앗을 퇴비에 섞은 다음에 씨앗이 묻은 퇴비를 밭에 뿌리는 과정을 농법으로 하고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리고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였던 비료는 다름 아닌 뚫걸름(돼지우리에서 썩힌 거름)과 불치(재) 그리고 항아리에 모아 놓은 오줌이었다.

“...비료어시난 보리도 안되어. 콩도 시절에 따라 좋으민 봉가먹고 안 좋으민 봉가 먹을 거도 없고..비료어선 이승만 박사 대통령 때 비료가 이서게. 일절 어서부난, ...오줌은 별헌거주게. 오줌은 그릇에 항아리에 받았다가 그걸 가져가서 주민 좋아. 뚫걸름도 내인 주고. 오줌은 별한 걸로 어디 허튼대로 허지안허 연. 두어달 모연 밭에 강 뿌리고 혼저 주젠 일년을 모으지 못하고. 오줌거름은 겨울에 뿌리고, 오줌을 허튼데 싸불민 옥듣고, 불치도 갓당 뿌리고, 걸름으로 뚫걸름, 오줌, 불치 그거밖에 거름은 어서. 마장에 소통 같은 거 통시에 낵 도 새기 오줌 싸면 그거 걸름 된다고 그거 뿌리고.” (유수암리, 강수일 씨談).

강씨 할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의 양씨 할머니도 오줌과 뚫걸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유수암리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전부 糞種法을 수행하기 위해서 뚫걸름을 사용하였고, 작물의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는 불치와 오줌을 애용하였다. 뚫걸름은 소로 운반하지만 오줌을 나르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마른 소똥을 돼지우리에 넣어 썩힌 후 이것을 마당에 내어 소로 밟고 씨를 섞어서 밭으로 운반하는 일은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었다. 뚫걸름은 유수암리와 산양리 그리고 감산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농사 과정에서는 모두 사용하였던 재래식 퇴비였고, 그 외에 ‘불치’도 비료로 사용했다. 이 세 가지는 제주도의 농사에서 작물의 파종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들로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과정에 개입되는 사람들의 노동은 삶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과정 그 자체가 삶이자 곧 삶을 구

현하는 과정이었다. 노동이 없는 과정은 삶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이다. 누구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노동이었다. 생산물은 노동의 결과일 뿐이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생산물이 노동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제주도의 인구와 생활은 이러한 노동과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에 적응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이 곧 삶의 핵심이라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농촌의 살림살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은 농법이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주도 사람들은 제대로 살림을 살았다는 결론을 지어도 무리가 없다.

일제의 강제공출은 자연에 적응하여 균형을 유지해온 제주도 농촌에 일종의 역사적 스트레스로서 작동하기에 충분하였다. 식량을 생산해오던 밭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기름을 생산하는 작물이 재배되었고, 전통적인 농법은 교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부역과 징용은 농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노동력과 노동력 동원의 방식을 혼란시켜 놓았다. 농법이 교란되고, 인구가 균형을 잃으면서 제주도의 농촌은 제주도민이 적응하기 힘든 속도로 방향을 틀었다. 결과는 가난과 싸우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속(속)을 캐다가 미래를 버무리는 체 해서 죽지 않으려면 먹고, 호غم씩 톨아 먹고, 막 눈이 벌겍하게 걸아다니지 못하게, 경 허명 보리밭에 겹질 매고, 그 보리 나면 또 호솔 먹젠 허민 또 그 병정들 오란 집을 다 털어단..”(유수암리, 고혜란)

특히 당시 농사의 주를 이뤘던 보리는 “보리 몇 가마 채우라 하민 그거 문뜩 털어도 부족해서”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여유 있는데 강 꿔당 내고, 꿔온 건 벌영 빚물고”하는 악순환이었다(감산리, 고경용). 일본의 강제공출은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장작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살림은 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고, 조각난 살림을 배경으로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라는 역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난 제국시대 살아난 거 생각허민 난 매파. 경 못살아도 장 내라, 쏘 내라 경허명 받으래만 들어오주게, 그날 그날 못먹어도 내어사주게. 나 경허명 살아난 사람. 무사 아니 죽어져신고 해져. 보리도 조도 면네(면화)도 내라. 어서도 내명 살았주게. 남의 밭에 강 자기 밭이 어서도. 아이고 나 그때 생각허민 섬찍허여. 그때로 보민 지금은 뉘 잠뿐.”(감산리, 조임옥, 86세)

보리쌀과 좁쌀 그리고 간장과 면화 등 일본의 강제공출은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의 빈곤함과 농사를 “많이 지어도”, 곡식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공출을 해야 했던 일제시대의 농사는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곱곱한”(갑갑한) 것이며, 그 때를 회상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며,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과거의 생활이었다.

결국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모자라게 마련이었다. 공출에 부족한 것을 메우는 방법은 삶을 쪼개는 수밖에 없고, 삶이 쪼개어지는 과정은 전통적인 삶 속에서 희생이 가능한 부분을 비집고 찾아내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특별하게 놀이가 없다. 집단적인 놀이가 없다. 놀이는 노동의 과정에서 잠깐씩 추임새의 맛으로 곁들이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삶이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일제시대의 농사과정은 엄청난 응축현상(involution)을 보인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해진 인구와 시간 내에서 아주 촘촘한 계획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삶이 바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지배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사의 대표적인 작물은 보리였다. 보리는 10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5월에 수확하고, ‘산디’(밭벼)는 3월에 파종하여 9월이나 10월에, 메밀은 7월에 파종하여 9월과 10월에 추수하였다. 간장과 된장을 담기 위해 필요했던 콩은 4월에 파종하여 9월에 거둬들인다. 당시의 보리 농사는 “쇠거름”을 ‘돛통’에 담고 그곳에서 돼지를 기르고, 쇠거름이 1년쯤 썩으면 쇠스랑으로 그것을 마당으로 내어놓아 소로 밟는다. 이때 씨를 섞어서 밟고 마차에 실어 밭으로 옮기게 된다. 동짓달 소로 실어간 씨

섞인 거름을 받을 간 고랑에 봐 가면서 발로 흙을 덮어준다. 소 한 마리가 밭을 갈면 그 거름을 뿌리는 사람도 한사람이 있어야 한다. 소의 뒤를 따라가며 작업이 이뤄진다.

보리는 겨우내 싹이 트면 김을 매기 시작하고, 보리가 익으면 낫으로 베어 봐 그것을 다시 묶고 “눌”을 쌓았다가 “클”로 훑은 후 “도깨”로 두드려 장만하게 된다. 고성1리에서는 보리를 장만하는 도깨질을 ‘고림질’이라고 한다. 마당에다 명석을 깔아 펴놓고 양쪽 끝에 각각 다섯 “장남”(성인남자를 말함)씩 나란히 서서 도깨질을 한다. 두드릴 때마다 열 장남 사이를 돌아다니며 두드린 보리를 뒤집어엮는 일은 여자의 몫이다. 보리를 두드려 한 사람이 두드린 보리를 옆 사람에게 도깨로 넘기게 되고 넘어간 보리를 두드린 후 다시 옆 사람에게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여 보리를 장만한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콩, 조, 메밀들을 선택해서 파종하게 된다. 콩이나 조, 혹은 메밀을 추수하고 다시 그 밭에 보리를 파종한다. 특히 콩은 수확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다음해 쓸 종자를 남겨두고 간장과 된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콩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된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살림의 과정이었다.

“콩이 나오질 않아서 씨하고 하면 장 할 거 어서. 아이고 참, 갬으로 정헬 살아 시카 해설거라.”(유수암리, 강수일)

겨울에도 놀 시간이 없이 보리밭에 검질을 매거나 “미녕을 족곡” 비가 오는 날엔 짚신을 만들거나 망태를 만들었다. 소가 있는 집에서는 봄에 목장으로 소를 “올리고”(목장으로 데려가고) 겨울엔 데려다가 물주고 출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먹을 양식을 장만하기 위해 “ㄹ래도 굴곡, 물도 질어 오곡, 아기 지성기도 빨곡, 뒷날 밭에 갈거 출리고, 밍으면 밭에 가”고 소똥을 좇아다가 굴목을 때는 일상이 반복되었다(산양리, 강위희, 90세).

“비오는 날엔 짚신을 삼고 겨울엔 명태(바구니), 명석 족곡, 출 비어당 말렸당 겨울에 하루 두개밖에 못 만들어. 자기 신을 뿐 팔건 없고. 낫엔 검질매곡, 명

태죽곡 하는 건 트멍 나민 하고 비오는 날 하고, 명태 만들어서 곡식들 다 담고, 겨울엔 항에 놓고, 명태 만드는 건 짝(벧짚)으로 허젠 허민 그것도 공덕(정성)이 필요허여”(감산리, 고경용)

비가 오는 날 남자가 하는 일은 짚바구니와 짚신을 만드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일본이 신작로를 만드는 부역에 동원되어 길 닦는 일도 하고, 아무리 힘들고 죽어져도 해야 했다. “차가 다녕 작지(자갈)가 튀어나면 또 하고 또 하고...바닷돌 실영 오젠허민 오죽 애그차질거라...면에서 다 맡기면 그 맡은 건 아맹 죽어져도 해야 허주게, 아맹 죽어져도 해사.”하는 것이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많은 강제적인 동원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조밭에도 매고, 보리밭 콩밭에도 매곡, 아이고 일 안허민 죽어, 어디강 돈을 쥐사 사먹을 거난, 놀아도 곡식 어성은 못 먹으난, 고래에 그 고래 끌어서 밥 해먹고, 요새 사람들 거짓말이랜 허주, 아이고 이거 삶인가...”(산양리 강위희, 90세)

(농사)기계가 나오고, 쌀밥을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귀천을 모르는 “요새 삶은 삶이 아니다”(유수암리, 이국추). “걷다 봐도 걷지 못하게” 그 많은 일을 다 하지 못할 때는 “해염시민 해지지”(하다가 보면 하게되는 것이지)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다(감산리, 고현임).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식수는 날이 어두워도 물을 길어다 봐야 하고, 허벅지로 저 나르는 양이 적으면 달밭에도 몇 번씩을 길어다 봐야 이튿날 아침밥을 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라는 역사적 스트레스가 제주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응축현상이다.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삶의 과정이 깊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여유없음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려운 삶의 과정은 일로 점철되었고, 중첩되는 일의 종류와 여유없는 시간배정 속에서 사람들은 “해염시민 해지지”라는 느긋함을 갖었다. “해염시민 해지지”의 대응이 강도높은 역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전략이었다고 이해하고 싶다. 그러한 심리

적 적응이 없는 상태의 응축현상은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에 역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4·3' 이후 50년대까지: “서로가 수눌어 가명 해 주는” 생활방식

제주도의 '4.3'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삶의 왜곡 현상 또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적지 않은 인구가 감소하였고, 거주지가 강제적으로 철거 내지 이동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굴절현상과 분절현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남자인구의 급감이 제공한 노동현장의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에게 부여된 노동강도가 일층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양리, 유수암리, 금등리 일부 지역은 모두 '4·3'사건으로 인하여 피난의 경험을 가진 마을들이다. 집이 불타고, 숨어 지내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의 통제하에서도 농사를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의 친척집에 피신하거나 남의 집을 빌어서 살았다. 일부는 학교에 모여 집단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친 피난생활은 “삶을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릇가무(지명)랜 현디 강 한 일년 살다가 오랏저. 그때 여기 느랑 올라왕 일하고, 맘대로 올라가져? 오후에 가라 해사 가고, 아이고 삶을 삶으로 살아 시냐. 법에서 가랜 해사 가주. 올 땐 할으방이영 아흐들이영. 내려가젠 허민 걸 영 가고, 낮에 호끔은 왕 일허당 가고. 맘대로 못 허여. 법에서 어느 날 가라 해사. 그때도 해난 농사들이주. 제대로 되지도 안하고 배급도 주느냐? 밀채 받아 당 먹고, 그게 삶을 삶으로 살아서?”(유수암리, 양상운)

소개되었던 마을에 성담을 쌓는 일도 피신해있던 해안마을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통근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밭에 가는 것도 경찰의 증명(허락)에 의해 밭일을 할 수 있었다. 피신하기 위해 가지고 간 쌀로 연명하면서 성담을 쌓았고, 그 안에

움막을 지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한 농사는 보리, 조, 고구마 등이었다.

남편이 사망하거나 장정이 없는 집에서는 밭을 가는 일과 마차로 거름을 실어 나르는 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사정을 해야만 할 수 있었다. 반대로 남자가 있는 집에서는 밭가는 일들만 하여도 김을 매는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해안가 마을인 안덕면 감산리는 '4·3' 사건으로 인한 피신이 없었던 마을이며, 이 마을의 김씨 할아버지는 다른 집에 밭을 갈아 준 대가로 김을 매는 일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흠어멍들이 일을 사흘을 해줘. 그러면 난 소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한 달이고 40일이고 밭을 가는 거지. 사람들 총살당해 불고해서, 내가 소가지고 가서 하면, 사흘을 노동을 해주니깐 우리 애엄마는 애를 키울 수 있었고. 김질 때는 거나 베는 거나 다 사흘 해주니깐 그걸로 이익을 보는 거지. 그걸로 일을 줄였지.”(감산리, 김창석, 81세)

12남매를 두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는 '4·3' 사건 무렵에 대동청년단 활동을 했었다.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다른 집(장정이 없는 집)의 밭을 하루 갈아주고 3일 김매기 노동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내의 김매기 노동이 없이도 밭농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4·3' 사건 직후 사건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제주도의 농촌에서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일이었다.

밭을 갈고 출을 베는 노동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감산리의 고씨 할아버지는 놀러갈 틈도 없이 김매다가 출베리 가고, 비오는 날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출은 베어서 묶었다가 마차로 실어 와서 '눌'을 쌓고 "여덟 번 사람 손이 가야 쇠입에 간다"는 말로 그 일의 힘겨움을 증언하였다.

애월읍 고성1리의 김씨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눔(일꾼)"을 빌면서 보리, 콩을 갈았다. 밭을 가는 일은 동네의 다른 집 남자의 품을 빌어야 했다. 이때 남자의 하루 밭갈기는 여자 네 명의 김매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소를 먹이기 위한 "출"을 베어주는 남자의 노동은 여자 두 명의 김매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밭갈

기와 출배기는 남자의 역할이었고, 김매기는 여자의 역할이라는 성별 노동에 관한 구분이 있었다. 남자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농사는 '4·3' 사건 이후 농사를 통해 얻는 부의 편차를 만들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제주도의 농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환노동에 관한 '수눌음'이라는 관습이 있었다. 육지부에서 행하는 품앗이와 지극히 유사한 교환노동의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수눌음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것을 통한 공동체의 유지와 형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유혈 사건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노동력 감소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는 수눌음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4·3' 사건으로 인하여 부족한 식량을 대신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밀채'(밀가루잡데기)였다. 소를 가지고 어른 남자가 있는 집은 마을의 다른 집에 밭을 갈아주고 그 대신으로 김매기를 해주는 여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감산리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는 부인이 아기를 돌보며 김매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밭갈기'로 다른 집 여자의 노동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성1리의 김씨 할머니도 "쇠장남 빌어 밭을 갈면 검질은 네놈(4명)의 역"이라는 생활 속의 노동규율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른 남자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농사와 '먹을 것'에서 차이를 만들었고, 이 차이는 어린자식이 성장하여 어른 남자의 역할(밭갈기)을 하기 전까지 여자(어머니)의 노동은 헤어날 수 없는 김매기의 생활이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은 놈(인부)해서 갈고, 그거 갠고, 일도 해주고, 돈도 주고 해서 갠고, 서로 인정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다(금등리 고창아). 산양리에서도 "쇠출(소 먹일 풀) 베어주고, 하루 가서 쇠 심어 주민(밭 갈아주면) 이틀 해주고, 검질이멍 말멍 서로가 수눌어 가멍 해주"는 생활방식으로 남자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성노동력의 제공을 통해 남자노동력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눌음은 노동생산성이 빈약한 조건에서 빌린 노동에 대한 대가는 돈보다는 노동력이 더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富의 축적이 빈약한 상황에서 돈에 의한 대가의 지불보다는 당장 필요하고 누구나 필요했던 노동력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 즉 지불할 돈이 없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농사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대가가 가능하였다. 수눌음을 통

해 서로의 노동력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집의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삶의 연속성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일부나마 역할을 한 것이 수눌음이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농사일 외에도 마을의 '큰일'(경조사)도 "동네에서 다 모다들엉" 일을 도왔다. "물도 저다 주곡"(물도 길어다 주고), 큰일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발계, 장막계, 몰방에게, 화단계(상여계)"들은 큰일을 위해 필요한 노동과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해주는 친목계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의 공동일과 '산담'(묘지의 돌담)을 쌓는 일 등에서도 각종 '계'가 있어 여러 사람의 노동을 빌어 큰일을 치를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노동력의 상황 속에서 노동과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수눌음이었고, 수눌음의 존재가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3) 60년대 이후 : “어느 건 어떻, 다 공들여서 했던” 농사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정치적 변혁이 제주도의 생활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새마을운동의 도입으로 인한 농업분야와 농촌의 일상생활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농사법과 자급자족 수준의 식량생산으로부터 현금작물이 도입되는 시기로의 전환이다.

제주의 60년대와 70년대는 밭농사에서 작목의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보리 대신에 유채가 비중있는 작목으로 떠오르고, 화학비료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애월읍 고성1리 강씨 할아버지는 서귀포실수학교(전 서귀농업고등학교의 전신이며 현재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나온 마을의 유지 중 한 사람이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다니며 농업교육을 받은 그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고 현재는 밀감농사를 하며 아들네의 과수원을 돌보고 있는 농부이다. 한때 지역의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콩보다 고구마의 수익성을 강조하여 생산을 장려하기도 하고, 새마을 사업에 앞장 서 일하기도 하였었다.

영농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이 전부였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영농방식의 변화는 전반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와는 달리 보리 이후에는 콩만 재배한 것이 아니라 고구마와 유채를 갈았다. 유채는 겨울 농사이기 때문에 콩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밭에 유채를 갈았다. 유채가 기존의 작물

보다 나왔던 장점은 보리보다도 가격면에서 나왔고, 또 기계로 타작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 제주도 전체가 노랗게 된 적이 있었다. '뚝결름'이라는 퇴비에 의존하였던 시비방법이 화학비료로 대체됨으로서 농업생산량이 현격하게 달라졌다. 따라서 보리농사에서 생산량을 현격히 올려 富를 이룰 수 있었다.

김매기는 여자들의 몫이다. 유채도 마찬가지로 유채보다 잡초가 더 자라면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김매기는 사람의 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밭에 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밭일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유채) 검질을 메사. 검질, 검질 못맨 허당보민 유채보다 검질이 커가민 건질 것 없고, 이제 그거 다 검질 메고 약으로들 검질 메지 않아도 검질이 죽는 그런게 이서서게. 게난 사람손으로만 해보젠 해봐. 완전 태역밭을. ... (밭에 가서도) 검질 못 바래민 들어오고, 들어오란 뭐 그스령 먹는 척하고, 헐일이 한한 허주게.” (유수암리, 강수일)

제초제가 나오기 전에 김매기란 농촌 여성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노동이었다. 그 작업은 오로지 사람의 손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여성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작물의 생장기간 동안에 보리, 콩, 조는 각각 2번씩 김을 매주게 된다. '산디'(밭벼)와 깨, 고구마, '나룩'(논벼) 농사에도 김매기는 반드시 뒤따르는 노동이었지만, 특히 나룩 농사는 “옛날도 상놈이 벌고 양반 먹으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통스런 일이었다.

유채 이외에도 고구마 농사는 '절간'(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말린 것)을 만드는 과정이 힘든 일이었다. 밭에서 캔 고구마는 밭이나 아니면 '퇴역밭'(들)에 가서 썰어서 널고, 비가 오면 밤이라도 달려가 '글갱이'로 굵으면서 모아서 담았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하였다. 생산된 절간 고구마는 전량 수매용으로 팔았다.

밭이 없었던 감산리의 조씨 할머니는 인근의 목장에 가서 김매기를 하며 돈을 모아 자식들의 결혼 비용과 집터를 사주었다. 당시 김매기의 하루 일당은 200원에서 400원이었다. 남의 밭에만 다니면서 김매기를 하였던 것은 다른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매기는 피하고 싶었으나 피할 수 없는 노동이었다. 유채나

고구마, 보리, 콩, 그 어느 것도 정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농사였다. “어느 건 어떻, 다 공들여서” 했던 농사들이었다.

김매기라는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한 밭농사는 제주도 농촌의 기본으로 재확인되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거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여성노동에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되었던 시기가 이 때라고 생각된다. 해방 이후 출생한 장성한 아들들이 농업노동의 후속세대로서 자가의 농업부문에 투입되기보다는 육지부의 산업단지와 도시로의 이주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제주도 농촌의 노동형태는 여성노동에 의존하는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응축현상은 여성노동으로 향하여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을 비롯한 생활의 중심에 선 제주도 여성들이 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노동은 “공들여서” 하는 것이라는 노동윤리는 제주도 사람들의 전통이며, 그것이 강도 높은 노동의 스트레스를 받고도 그러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저수지라고 생각된다.

육지부의 새마을운동이 잘 이루어진 곳과 비교한다면, 제주도에서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전경수, 한상복 1999). 육지에 적합한 방식의 농촌발전론이 제주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목축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마을공동목장의 존재는 육지에서는 없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공동체 존재양식과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제주도의 농촌 변화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정하기가 어렵다.

4) 감귤 농사: 자식의 일을 대신하는 끝나지 않은 농사

유채로 시작한 제주도의 환금작물에 대한 인식은 밀감으로 전환되었다. 농업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고, 상품생산을 위한 농업의 현상은 제주도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노인들에게 밀감농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고, 농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스스로는 농사의 일선에서 후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노인들이 했던 농사는 주로 보리와 콩, 조, 고구마 농사이다. 밀감농

사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감농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주로 텃밭이나 자식의 과수원에 가서 김매기를 하는 정도이다. 밀감 과수원의 땅이 본래 자신이 농사를 짓던 토지일지언정 재산으로 물려 준 이후 노인들은 농사의 주인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소일거리로 김을 매거나 농촌을 떠나 있는 자식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부수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밀감이 많지 않았던 금등리에서는 양파와 양배추 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도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고씨 할아버지는 일꾼을 빌면서 800여평의 밭에 양파 농사를 하고 있다. 감산리의 할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아들의 과수원일지라도 관리하는 명목으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자식의 과수원에 김매기 외에도 수확 철에 일손을 덜기 위해 밀감따기를 도와주고 있다. 다만, 외아들이 서울에 있는 감산리의 강씨 할아버지는 부인과 직접 밀감 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밭들도 아들 쥐 불고 아무것도 없고, 쌀 한말 사민 한달도 먹고 두달도 먹고, 아들들은 여기 하나뿐. 일본도 강 살고, ...맨드롱 헛디 넣 자명, 경허난 오래 살주, 아니 죽으면 살겨주. ..아픈데는 열두신 뼈 다 아프고 일할땐 아픈 텔 모르다가 영 넣자면 아프고, 큰 아들은 미깡 농사하고 마농도 하영 심그고 한 여덟마지기, 그 밭에 강 검질도 메고, 그거 강 호끔 하민 뼈가 퍼와지고 미깡 철엔 미깡도 따고..”(산양리, 진화옥, 87세)

“아들네 농사 지으니깐 하여튼 끊임없이 아들네 농사 도와줘, 일없는 하르방들 운동운동하는 거지 일하는 게 운동하는 거지, 일이 운동이라서 꿀 딸때는 하루 종일 따면 피로우니깐 9시쯤에 나가서 12시쯤 집에 와부러, 점심먹고 2시쯤 나가서 한 5시까지 따고, 꼭 운동 필요없어 우리는, 오늘도 아들네 미깡밭 돌아보고 왔어. 한 2키로 될거라. 무슨 운동운동허영 헬스클럽다니고...농촌에 자식들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내는 거고.”(고성1리, 강 정, 80세)

농사의 일선에 물러나 있다고 하나 농촌에 살지 않는 자식을 대신하여 노인들은 자신이 물려준 자식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집과 밭을 지키고 있

다. 자식이 없었던 금등리의 고씨 할머니는 조카들에게 자신의 집과 밭을 물려주었고, 혼자서 텃밭을 일구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사망하면 그 집과 토지는 조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했지만 농촌에 살지 않는 자식들의 과수원을 감산리의 김씨 할아버지 부부와 고성리의 강씨 할아버지 부부는 '관리'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은 온전히 자신들이 농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금등리에 혼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이젠 밭 어시난 아무 것도 안허고" 있다지만 사실은 아들네의 농사를 거두고 텃밭 농사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농사일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모든 장수노인들은 마을 안에 가족이 있지만 따로 거주하며, 다른 살림을 하고 있다. 설령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며느리가 김치나 반찬정도를 해오고 바로 옆집에 살지언정 거주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병으로 아파 누워 있던 할머니들도 한 울타리 안에 혹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집에 살지언정 거주공간을 분리하고 밥도 따로 해서 먹는다. 전통적인 안거래와 박거래의 거주공간 구분은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강하게 유존하고 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도 생활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인역 허고 뜬대로 허는 것이 좋아"서라고 한다(산양리, 조임생). 또 "며느리들이나 손지들이 할망한테 밥 해가게 시간이 걸려. 인역이 그리우면 해먹고 물질어당 낵 그리우민 해먹곡, 손지나 며느리나 삼시 그리웁신가 허민 일을 못허주게. 경허난"(산양리, 강위희, 90세) 바쁜 농사일을 위해서 따로 사는 것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독립적인 삶의 공간을 유지하고, 스스로 삶을 경영하는 장수노인의 모습 그 자체가 장수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삶을 살아가는데 까지는 스스로 삶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농사는 노동, 노동은 일상생활

'농사일을 언제까지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개는 5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시점에까지 이른다. 그 시점은 남편의 사망이나 아들이 결혼하

여 재산을 물려준 시점이다. “흙에 방둥에”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해서 생계를 이끌어야 했던 일제시대와 ‘4·3’ 사건이라는 고통의 질곡을 넘어 키워낸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줬던 시점이 곧 자신이 농사일에서 은퇴했던 시점으로 설정되고 있다. 물리치료나 경로당에 다니며 놀고 있다는 할머니들은 “농사일 설러분 지가 오래다”라고 한다.

아들네가 일하지 말라고 만류하여 일을 놓았다는 산양리의 강씨 할머니는 81세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도 아들네 밭에 가서 김을 맨다. 매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심심허난, 앉앙 허는 일이난, 고만히 앉으민 지루허고”해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김매기의 일은 ‘농사’는 아니지만 몸에 배어 있는 일상이다. 김매기가 지긋지긋한 농사일이었지만, 겨울날씨 치곤 제법 따듯했던 날, 울타리 담장 밖의 김을 매고 있었던 할머니. 아들네 과수원에 가서 김을 매고, 시내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갔다가도 텃밭의 잡초가 걱정되어 일찍 돌아와 김을 매었다는 할머니들의 삶에서 김매기는 도대체가 할머니들의 삶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노동이며 일상 자체이다.

이런 노동은 “농사를 설러부러도” 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농사에 대해 다른 개념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사’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거나 자신의 땅에서 한다는 의식이 엿보인다. 재산을 분배했다는 것은 자신이 농토에서 분리되고 경작의 주도적 위치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내가 벌어서 마련한 땅이지만 자식들에게 재산으로 물려주고, 마을에 살지 않는 자식의 과수원에서 하는 일은 농사가 아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것도 농사라기보다는 소일거리로 ‘몸을 놀리는 일’라는 의미가 강하다.

금등리의 수장동은 산으로 올라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서 만난 진씨 할머니는 자신이 시집왔던 옛집 그대로의 상태인 가옥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아들들이 모두 나가버린 집에서 이제 혼자 살기에 너무나 커진 집이다. 집과 가까운 곳에 큰아들이 따로 살지만 본래 세 칸이었던 집의 두 칸을 허물어서 그 터에는 파를 심었다. 파를 심고 기르는 것은 그 할머니의 ‘농사’가 아니다. 할머니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소일거리이다. 산양리의 폐교된 초등학교의 관사에 거주하는 좌씨 할머니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또 넘어져서 한 손을 사용하지 못 하지만, 할머니가 사는 관사 앞의 손바닥만한 땅에는 어린 배추 묘종이 할머니가 주전자로 일일이

뿌린 물을 먹으며 자라고 있다. 금등리의 고씨 할머니 역시 집으로 들어가는 '올래'의 한쪽은 파가 자라는 텃밭이다. 이들 모두 할머니의 텃밭에는 '검질'이 없었다.

이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이 좋아서 일을 즐기는 것일까? 이러한 일상의 작은 농사일은 할머니들이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힘들었던 기억 속의 농사가 이제는 익숙해져 더 이상 일이라고도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생활의 근거이다.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 역시 모두 농촌이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크고 작은 농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이 농촌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오랜 세월 몸으로 익혀온 노동이 이제 생활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일상인 것이다.

4. 결어와 제언: “가늘면 길고 둥지면 빠르고”

본고는 제주도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억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경험된 그들의 일과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장수노인들과의 면접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그들이 기억을 바탕으로 구술한 내용을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內觀民俗誌(emic ethnography)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장수라는 현상에 관한 당사자 자신들의 관점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자료가 外觀民俗誌(etic ethnography)에 의한 자료들 예를 들면, 장수자들의 음식과 가족생활 등에 관한 내용들과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체계적인 면을 구성할 때 보다 나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삶에 대한 철학의 차원에서 조명해본다면, 제주도 장수노인들의 입장은 운명론자들이다. 노동과 역사 또는 정치라는 덩어리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도 아니고 적극적인 수용도 아닌 입장을 취한다. 무게를 갖고 다가오는 현상들이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한 것 자체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온 것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순응도 아니다. 순응이라는 행동이나 태도조차도 적극적이 아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함에 만족하려는 관점이다. “걷다 봐도 걷지 못하게” 그 많은 일을 다 하지 못할 때

는 “해염시민 해지”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다.

“귀천을 모르는 요새 삶은 삶이 아니다”(유수암리, 이국추)라는 증언은 모가나고 자연스럽게 못하고 억지의 모습들에 대한 장수자의 심판이다. 귀한 것은 귀한대로 의미를 갖고, 천한 것은 천한대로 의미를 갖는 삶의 조화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장수노인들은 농사 외에도 자신들의 이력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동을 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산에서 솥을 만들어 시내에 가서 파는 솥장수, 해방 전 일본에서의 방적공장과 종이상자 공장에서의 노동경험, 일본에서의 징용, 징용을 피해서 만주로 간 뒤 만주의 昭和製鋼所에서의 노동, 양태 만들기, 육지와 일본으로의 바깥 물질, 목수, 기와 만들기, '4·3' 사건 때 개인적 원한에 의한 고문 등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역정은 삶의 질곡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힘들었던 인생살이에 대한 경험들이 생애사의 형태로 간헐적이거나 정리를 해보았다.

“못 살았던 때가 힘들었지. 사태 난 시국에..제일 못전던 때가 그때주게. 그 추룩허던 호곰 살아왔시난 배롱허던. 시국땀 그런거(수눌음) 하고, 삶이 배롱해사 그런거 허주. 나고 높이고 인심이 박해. 길에서 봐져도 혼저혼저 강 땅파젠 검질매젠. 맨 천지가 일이라. 아이고 아이고...요만히도 앓은 때가 어서.”
(유수암리, 강수일)

“하간 생각 잊어버려신게. 난 삶을 삶으로 안 살아나난..”(유수암리, 양상운)

“소년도 중년도 말년도 일반. 한번도 배롱한 일이 어선”(산양리, 김남화)

“배고픈 상심만. 어신 사람은 낭도 해당 팔아먹고, 나도 한해는 서른 두점을 전 모슬포에 나들어서. 이틀 역벌런 낭헐 잘 팔아지민 쌀 한숨은 사지고 경안허민 반숨은 사고”(감산리, 오월생, 82세)

“힘들었던 건 남편은 12월에 돌아가고 이듬해 7월에 막내 낳았어요. 그걸 내가 큰아들도 공부를 못시키고 하니깐 공부를 열심히 시킬려고 하니깐, (막내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뇌막염 걸려서 죽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땅도 팔아서 쓰고, 나는 부모 물려준 땅 하나도 없어요. 일본서 와서 샀던 땅 팔아서 쓰고, 아이들 굶길 수 없으니깐 아이들만 커서 잘 살면 됐지, 이런 생각밖에.”
(감산리, 고순옥, 84세)

“애기들 돌양 남편 죽어부난 그때가 제일 힘들언”(감산리, 조임옥, 86세)

“보리 빌 때 보리 걸름 놓을때, 비료 어시난 쇠 어신 사람은 등땀이로 져가고, 그 아이 이만히 배불러도 져가고, 보리 훑으는 거, 막 힘들어. 도끼로 두드려 불려, 방애강 전 보리쌀 허연 밥해 먹엉, 밭에 갔다 오민 고래 끌고. ..”(금동리, 김유순)

“(장수하는 이유가)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해서 명으로라도 더 살라고. 가늘면 길고 뚱지면 빠르고.”(감산리, 김창석, 81세)

‘고생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내관적인 설명이다.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장수라는 현상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다. 고생이 장수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의 배경에 깔린 인생과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의 이면을 읽을 수 있다. 가늘게 산다는 것이 고생이고, 가늘게 산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산다는 것이다. 항상 주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무리없이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웠던 인생살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장수의 심리적인 원인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제주의 노인들이 겪어온 경험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식민지 경험이나 ‘4.3’ 사건과 같은 유혈분쟁)으로부터 연유된 역사적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스스로 해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일제의 강제공출은 척박한 토지 환경에서도 생산량을 늘리려는 안간힘으로 더욱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은 “옛날 못전던 걸론 죽지 안허연 살아지는 거라”서 지금도 다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의 기억과 그것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식을 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힘들었던 때를 누군가와 함께 지냈다면 이들의 장수와 어떤 상관은 없을까? 할아버지의 경우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혼자 사는 할머니인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4·3’ 사건과 병으로 오래 전 남편의 사별을 경험한 할머니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10년 안팎으로 남편과의

사별 경험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경우에도 남편이 농사일을 잘 거들거나 다른 노동을 해서 가정의 생계를 거둔 일은 드물었다. 장수의 비결로서 부부의 오랜 해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심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낄 뿐 이 부분에 대해선 차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의 연구를 통하여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장수자들의 “長壽以後”에 연결되어서 다가오는 여생의 문제다. 이 부분이 복지의 문제이다. 살아온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형편을 관찰함에서도 장수노인들의 문제는 앞으로 노인복지의 방향이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제주의 장수노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생활의 3고는 배고팠던 것, 너무도 많은 농사일을 해야 했던 것, 그리고 정치적 충격으로 인하여 갈기 갈기 찢어진 삶의 현장에 관한 기억들이다. 흔히 ‘노인의 3고는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말한다. 현재 제주도의 장수노인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배급을 주고 있으나 자식이 있으나 부모를 돌보지 않아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경우 사회적 지원대상에서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더욱 독거노인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정과 개인에게 귀속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노인사회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이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적인 健康長壽의 틀에서 본다면, 현재 제주도의 장수노인들은 상당한 정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장수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모두 다르다.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과 청취가 불가능한 노인, 힘들게 걷는 노인 등등이다. 나이에 따른 신체적 노쇠함이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고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리말에 약봉지가 수두룩한 노인들에 대해 세밀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물리치료와 의료보호가 되지만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도 말미암아 가족의 무관심이 한층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거동의 불편함과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에게 끼치는 심리적 불편함 등 물리적 의료활동만

이 아닌 심리적 지원과 복지정책이 함께 병행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이용철 2002 장수지역노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수 1997 環境親和의 人類學. 서울: 一潮閣.

전경수 2001 “초고령화 사회와 장수인류학의 전망”, 전통과 현대 16: 77-98.

전경수.한상복 1999 제주농어촌의 지역개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Work Experiences and Work Ethics of Longevities in Jeju Islands

Chun, Kyung-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work experiences and work ethics of longevities in Jeju Islands through their memories. Interview with longevity has some positive meanings in that it is emic ethnography which represent their own viewpoint about longevity.

Longevities in Jeju Islands explain their longevity as a result of hard work. To have a hard time is not exact causes of longevity, but we can understand their philosophy of their life. To make life thin is to have a hard time and to be careful. So we can read their attitude to think positive about their life. It should be insisted that this attitude is a psychological causes of their longevity.

Key Word : 제주도, 장수, 노동, 노동 경험, 노동 윤리, 장수자